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논문집 제3집
조직신학편 pp.65-93

성경이 진술하는 '창조'에 대한 칼빈의 이해와 그것이 가지는 목회적 관심

(Calvin's Understanding on the Creation in
the Bible and It's Pastoral Concern)

김 성 봉*

들어가는 말

'칼빈의 창조론'이란 제목으로 쓰여진 논문으로 근세에 쓰여진 것으로는 워필드(B. B. Warfield)의 것이 가장 고전적이다.¹⁾ 그 후 40년이 지난 뒤에 머레이(J. Murray)가 워필드가 그의 논문에서 다룬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특별히 '간접 창조'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그의 논지를 전개하였다.²⁾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듯이 보인다. 그런데 엄밀히 이 제목이 아니더라도 이 주제 하에 다음과 같은 글들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들은 보하텍(J. Bohatec)의 "Calvins Vorsehungslehre"(칼빈의 섭리론),³⁾ 뤼트게르트(W. Luetgert)의 "Calvins Lehre vom Schoepfer"(칼빈의 창조자론),⁴⁾ 니젤

* 신학대학원 조교수

- 1) B.B.Warfield, "Calvin's doctrine of creation," in: *The Princeton Theological Review*, 1915, pp.190-255. reed. in: *Calvin and Calvinism*, New York, 1931, pp.287-343.
- 2) J.Murray, "Calvin's doctrine of creation," in: *WMTJ*, Philadelphia 1954/55, pp.21-43.
- 3) J.Bohatec, "Calvins Vorsehungslehre," *Calvinstudien*, Reformierte Gemeinde, Elberfeld, 1909, S.339-441.
- 4) W.Luetgert, "Calvins Lehre vom Schoepfer," *Zeitschrift fuer systematische Theologie* 9, Guetersloh, 1931, S.421-440.

(W. Niesel)의 「Die Theologie Calvins」 '칼빈의 신학' 가운데 한 부분,⁵⁾ 베르너(K. Werner)의 「Das Wirken des Heiligen Geistes nach Calvin」 (칼빈의 성령 사역론),⁶⁾ 몰트만(J. Moltmann)의 「Gott in der Schoepfung」(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⁷⁾ 등이다.

본 글의 관심은 위펠드와 머레이 사이의 논점을 이어가는 데 있지 않다. 그 관심은 오히려 성경이 진술하는 '창조'에 대한 칼빈의 이해를 전체적으로 그려보려는 데 있으며, 또한 그것이 가지는 목회적 관심을 서술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이 방면에 있어서 독특한 위치를 점한다고 생각한다. 창조와 관계된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위펠드가 단연 우세하며, 머레이는 위펠드가 다룬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서 단지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논구하였고 그 때문에 '창조'에 대한 칼빈의 이해에 대한 전체 그림을 원하는 독자들에게는 그 내용이 너무 좁은 감이 없지 않다.

본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먼저 칼빈 자신의 글을 살피고,⁸⁾ 다음으로 그에 관한 다양한 평가들을 비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제 1 부 창조신앙과 목회적 관심

1. 창조신앙

성경이 진술하는 '창조'에 대한 칼빈의 이해와 관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그가 가졌던 창조신앙이 언급되어질 수 있겠다. 칼빈은 말하기를 "중요한 것은 세계가 영원 전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이다."고 하였다.⁹⁾ 칼빈은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창조신앙은 성경을 중심으로 한

5) W.Niesel, *Die Theologie Calvins*, Muenchen: Kaiser Verlag, 1938, S.55-66.

6) K.Werner, *Das Wirken des Heiligen Geistes nach Calvin*, Goettingen 1957.

7) J.Moltmann, *Gott in der Schoepfung*, Muenchen: Kaiser, 1987(3.Aufl.).

8) 이 주제를 살피기 위한 칼빈 자신의 글로는 그의 기독교 강요와 창세기 주석이 주요 텍스트가 되겠다.

9) J. Calvin, *Commentaries on the first book of Moses called Genesis*(vol.1), trans. by J. King(1847), Grand Rapids:Eerdmans, 1948, (이하 Calvin, *Genesis*라 약칭함), 1:1.

성경대로의 창조신앙이었다. 그는 성경 이외의 다른 것에 근거한 창조론이나 만물 기원론에 대하여는 비판적이었다. 한편으로 칼빈은 무형적인 물체가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논하고, 다른 한편으로 세상이 새롭게 장식되었고 이전의 형태와는 다른 모습을 갖게 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일축하였는데, 칼빈은 이 같은 견해에 대하여 “전에 이방신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하나의 우화일 뿐”이라고 비판하였다.¹⁰⁾ 칼빈은 이에 대하여 단지 창조기사를 잘못 받아들여 하나님의 진리를 전승에 따라 와전시킨 것이라고 하며, 이에 덧붙여 세계는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조화롭게 단장되었다고 한다. “한편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놀라운 예술가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이다. 그 분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배열하여 그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신 분이시다.”¹¹⁾ 칼빈은 창세기 1장의 주석을 마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물이 균형과 조화 면에 있어서 덧붙일 것이 하나도 없는 가장 완벽한 것임을 알게 된다.”¹²⁾고 하였다.

칼빈은 이 같은 서론적 진술에 있어서도 그의 목회적 관심을 잘 드러내고 있다. “만일 누가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서 피조물에게서 보여주신 그 명백한 권능을 아무 생각 없이 잊어버리거나 그냥 넘겨 버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일 누가 마음에 감동을 받을 정도로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배운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을 이해하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¹³⁾고 하여 창조신앙과 관계하여 자기 나름대로 참된 신앙에의 바로미터를 제시하였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만사를 제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과 은혜를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주신 큰 은사에서 느끼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것”¹⁴⁾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분명히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항상 이 거룩한 명상에 잠겨있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울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에게서 하나님의 지혜, 공의, 선하심, 권능의 무한한 부요

10) Ibid.

11) Calvin, *Genesis*, 1:14.

12) Calvin, *Genesis*, 1:31.

13)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by F. L.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7(8th ed.)(이하 Calvin, Inst.라 약칭함), I.xiv.21.

14) Calvin, *Inst.* I.xiv.21, n.32.

함을 정관할 때, 그것들을 ... 충분하게 생각하고 또 진지하고 충실하게 심사숙고하며 계속 그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¹⁵⁾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니젤은 칼빈이 창조와 관계하여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찬양에 이르기까지 생각하며, 깨닫고, 감사하게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그가 창조한 질서가 그의 손 안에 있고, 그의 능력 여하에 달려 있다는 사실과, 우리는 다만 그의 성실과 보호로서 먹이시고 기르시는 자녀이며, 우리의 선은 모두 그 분에게서만 기대할 수 있으며, 그 분만이 우리를 그릇된 파멸의 악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는 확실한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든지 그 분에게서만 선물로써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얻는 모든 것들이 그 분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진실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 결과 그 분의 넘치는 자비와 풍성한 은혜의 맛에 이끌려 우리는 진심으로 그 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 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다.”¹⁶⁾

2. 창조신앙에 있어서 성경의 중요성

이 같은 창조신앙에 있어서 성경이 참으로 중요한데, 칼빈은 창조 신앙에 있어서 성경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그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안경”에다 비유하였다.¹⁷⁾ 이것은 그가 즐겨 애용하는 비유인데, 이 경우의 안경은 시력이 조금 나쁜 사람이 쓰는 안경이 아니라 시력이 아주 나빠서 그 안경이 아니고는 사물을 크게 잘못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쓰는 그런 안경을 가리킨다. 또한 그는 성경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안내자요 교사”¹⁸⁾로 비유하였다. 이와 유사한 비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별한 학교”¹⁹⁾라거나, “새로운 치료 방법”(a new remedy)과 “새로운 도움”(a new aid)²⁰⁾으로서의 성경이라거나, “우리의 안내자요 선생”²¹⁾으로서의 성경이란 표현들이다.

더욱이 성경 가운데서도 이 주제와 관계하여서는 창세기의 가치가 단연 두드러져

15) Ibid., I.xiv.21

16) W.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S.60. *Inst.* I.xiv.22 인용.

17) J. Calvin, “Argument,” in: Calvin, *Genesis*, pp.57-66(이하 Calvin, “Argument”라 약칭함), p.62. *Inst.* I.xiv.1, n.3. 비교, I.v.12, 15와 I.vi.1의 예.

18) Calvin, *Inst.* I.iv.T.

19) Ibid., I.vi.4.

20) Calvin, “Argument,” p.62.

21) Ibid.

보이는데, 그는 말하기를 “모세가 기록한 이 첫 번째 책은 다른 것과 비교가 될 수 없는 보화로서 간주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최소한 이 세상의 창조에 관하여 도저히 논박의 여지가 없는 확신을 부여해 주기 때문입니다.”²²⁾고 하였으며, 또한 “만약 하늘과 땅의 침묵적인 교훈으로 충분하다면 모세의 교훈은 불필요하였을 것”²³⁾이라고도 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은 그 분 자신의 생생하고 명백한 모형이기 때문에 그는 이 점에 대하여 우리를 환기시키고 있다.”²⁴⁾고 하였으며, 히브리서 11:3을 인용하여 “그리하여 믿음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²⁵⁾는 그 사도의 주장을 확증하고 있다고 하였다.

3. 모세 저작으로서의 창세기

그는 또한 창세기가 모세의 저작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²⁶⁾ 그는 이미 그 당시에 모세의 저작설에 반대하여 제기된 다양한 논의들을 알고 있었으며, 그 논의들에 대하여 그러한 논의들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모세는 자기가 기록한 일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며, 그렇다고 글을 읽어보고 그 진리들을 배운 것도 아니다”²⁷⁾는 주장에 대하여 “모세가 기록한 이 첫 번째 책은 ...”²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산 형상을 보여주는 거울로서 우리 앞에 두신 것”²⁹⁾이라고 하였고, “모세가 창조주이며 유일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증인이며, 사신이였다.”³⁰⁾고 하였다. 또한 “선지자들은 장래사도 알고 예언하였는데, 이미 지난 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겠는가?”라고 말하며, “먼 미래에 되어 질 일들을,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도 감지할 수 없는 시대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미리 볼 수가 있던 그에게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

22) Calvin, “The author’s epistle dedicatory,” in: Calvin, *Genesis*, pp.xlv-lv(이하 Calvin, “Dedicatory”라 약칭함), p.1.

23) Calvin, “Argument,” p.62.

24) *Ibid.*, p.63.

25) *Ibid.*

26) Calvin, *Inst.* I.xiv.20, I.xiv.2.

27) Calvin, “Argument,” p.58.

28) Calvin, “Dedicatory,” p.1.

29) Calvin, *Inst.* I.xiv.1.

30) Calvin, *Inst.* I.xiv.2, I.xiii.22-24.

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역량이 없었겠는가?”³¹⁾라고 논증하였으며, “특별히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을 감안해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을 것이다.”³²⁾고 하였다.

이 밖에도 창세기의 모세 저작과 관계하여 “그가 여기서 그 자신의 예견을 제시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인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일들을 책으로 엮어서 알리기 위하여 그는 성령님의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³³⁾고 하거나, “그가 최초로 기록으로 옮기게 된 것”³⁴⁾이라 말하고, 모세에 대하여는, “그는 우리들의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감탄을 전하고 있다.”³⁵⁾고 하였다.

이제 모세가 기록한 내용에 대하여 칼빈이 언급한 바를 살펴보자. 칼빈에 의하면 모세는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에게 전혀 낯선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전혀 논란이 되지 않았던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³⁶⁾ 그에 의하면 모세가 “모든 사람들이 전에 전혀 듣지 못한 일들을 기억하도록 전한 것이 아니다. 그때까지 기나긴 세월을 내려오면서 그의 조상들이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전하여 결국은 자손에게 전달했던 사실들을 그가 최초로 기록으로 옮기게 된 것”³⁷⁾이다. 칼빈은 아담 이후 모세에 이르기까지 계시가 유기적으로 전승되어 왔다는 것을 은연중에 전제하고 있다. 심지어 칼빈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모세 시대 훨씬 이전에 계약에 대한 지식이 있었는데, 그 같은 지식은 모든 백성들에게 보편적인 것이었다.”³⁸⁾ 그리하여 칼빈은 창조의 지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그러므로 ... 세상의 창조가 고대와 조상들의 항구적인 전통을 통하여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³⁹⁾

칼빈에 의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건설자시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선포

31) Calvin, “Argument,” p.58.

32) Ibid.

33) Ibid.

34) Ibid.

35) Calvin, *Genesis*, 1:20.

36) Calvin, “Argument,” p.59.

37) Ibid., p.58.

38) Ibid., p.59.

39) Ibid.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하여 그 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며 그 분의 지혜와 선하심과 (특히 인류에 대한 그 분의 부드러운) 배려가 얼마나 감탄할만한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⁴⁰⁾ 창세기의 내용에 대하여 칼빈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모세가 세상의 창조로 시작하고 있긴 하지만 그 주제에만 제한하고 있지 않다.”⁴¹⁾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철학적인 통찰력으로 불가사의한 신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관찰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미개인들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것들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⁴²⁾고 말하여 성경이 어떤 특수한 분야의 언어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로 보편성 있게 쓰여진 것임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다. 계속되는 구절에서 칼빈은 “모세가 ... 자연의 비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⁴³⁾고 잘라 말하였다.

이제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에 대한 칼빈의 이해를 살펴보자. 칼빈에 의하면 창세기의 기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것인데, “그것의 순수성을 항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그 역사를 기록하게 하는 것을 기쁘게 결정하신 것”⁴⁴⁾이라고 한다. “성경을 통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밝혀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들을 깨닫도록 거의 강요하고 계신다.” 창세기 기록 목적에 대한 이 같은 이해는 그의 역사 이해와도 연관되어 있는데, 그에 의하면 “이 역사의 전체 영역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신 그 분의 특별한 배려를 나타내셔서 인류가 그 분에 의하여 보존되어 왔다는 것을 지적하는 데 있다.”⁴⁵⁾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창세기 기록방식에 대한 그의 견해이다. 칼빈에 의하면 “이 구절에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언급하고 있다. ...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천문학이나 고도의 기술을 배우려 해서는 안 된다.”⁴⁶⁾고 하여 창세기를

40) Ibid., pp.62-63.

41) Ibid., p.64.

42) Calvin, *Genesis*, 1:14.

43) Calvin, *Genesis*, 1:16.

44) Calvin, “Argument,” p.59.

45) Ibid., p.64.

46) Calvin, *Genesis*, 1:6.

마치 과학서적처럼 대하려는 자세에 대하여 경계를 표하고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대로 그는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 신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관찰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미개인들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것들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⁴⁷⁾고 하여 성경을 읽을 때 과학적인 언어나 철학적인 언어가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로 대하고 읽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이어지는 구절의 주석에서 “여기에서는 ... 철학적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해와 달이 어느 정도 밝게 우리에게 비추는지를 말하고 있다.”⁴⁸⁾고 하는 표현이나, “모세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체로 기록했지만, 천문학자들은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심혈을 기울여 연구하였다.”거나, “모세는 알기 쉬운 표현방법을 택한 것이다.” 또는 “모세는 우리를 모두 신비한 하늘 세계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뿐이다.”⁴⁹⁾라고 말한 모든 것이 같은 내용을 가리키는 표현들이다. 칼빈은 모세가 “유식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들도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교육방법을 택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만일 모세가 일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말했다면,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그에게 호소했을 것이라”고 하였다.⁵⁰⁾

우리는 여기서 칼빈의 목회적 관심을 읽을 수 있는데, 칼빈은 이 세상의 창조에 관한 “확신이 없이는 우리 인간은 이 지상에서 살 만한 가치가 없다”⁵¹⁾고 하여 이 세상의 창조에 관한 확신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달로 인해 밤이 밝아지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으며 달빛을 악하고 배은망덕하게 사용하는 자들은 징죄 받아야 한다.”⁵²⁾고 하여 창조세계에 산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을 역설하였다. 그는 또한 그 당시의 철학자들이 우주의 기원에 대하여 이러저러하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철학자로서 이 우주 창조자의 기교에 대하여 추론하는 것은 헛된 수고에 지나지 않는다.”⁵³⁾고 하여 그

47) Calvin, *Genesis*, 1:14.

48) Calvin, *Genesis*, 1:15.

49) Calvin, *Genesis*, 1:16.

50) Ibid.

51) Calvin, “Dedicatory,” p.1.

52) Calvin, *Genesis*, 1:16.

가치를 평가절하 하였다. 그가 제시한 우주 기원에 대한 해결책은 "복음의 말씀으로 먼저 겸손해져서 자신들의 지적인 지혜를 완전히 십자가의 미련함에 맡기는 것을 터득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창조의 오묘성을 추론하여 알게 되는 것"⁵⁴⁾이었다.

4. 창조 기록에 대한 모세/성령의 의도

칼빈은 창세기를 주석하면서 재미있는 추정을 시도하였는데, 그것은 그 기록에 대한 모세의 의도를 짐작해 본 것이었다. 물론 이것은 한편으로는 모세의 의도요,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의 의도라 할 수 있겠다. 그에 의하면 모세의 책에서 그의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 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⁵⁵⁾이다. "우리는 불가시적인 하나님을 오직 그 분의 사역들을 통해서 알고 있다."⁵⁶⁾ 칼빈에 의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기를 원하는 자와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다른 길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오직 여기서 밝혀지고 있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전세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입증하고자 하는 그의 뜻이었다."⁵⁷⁾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두 가지 극단이 있다고 한다. 그 하나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데 전력을 쏟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본질만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⁵⁸⁾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자연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지 않고 자연의 신비를 탐구하는 것은 왜곡된 탐구가 아닐 수 없으며, 자연을 주어 우리에게 혜택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창조자를 인정치 않은 채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을 향유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면에서 배은망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⁵⁹⁾ 그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자신에 대하여 알도록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여 어떤 모양으로 자신을 계시하면서 우리들이 보는 눈앞에 천지의 조직을 펼쳐 놓으셨다."⁶⁰⁾ 왜냐하면, "우리는 불가시

53) Calvin, "Argument," p.63.

54) Ibid.

55) Ibid., p.58.

56) Ibid., p.59.

57) Ibid., p.66.

58) Ibid., p.60.

59) Ibid.

60) Ibid., p.58.

적인 하나님을 오직 그 분의 사역들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다.”⁶¹⁾ 또한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 하늘과 땅의 조직에서 전시되어 있으며”⁶²⁾ 하나님은 ... ‘세상의 모형’으로 자신을 옷 입히고 계신다.”⁶³⁾ “그런 세상의 모형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을 제시하셔서 우리가 관조할 수 있게 하시는데, 우리는 천지의 비교할 수 없는 의복으로 장관을 이루는 성장을 하고 계시는 그 분을 보려고 해야” 한다.⁶⁴⁾

칼빈에 의하면 모세는 “이 선포로 우리 자신들의 주의를 자극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우리로 이 자연의 장면에 배치하신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려고”⁶⁵⁾ 접근하고 있다. 즉, “그것들은 단순한 증거들로 보지 말고 동시에 이 자연에서 전시되고 있는 모든 풍요를 향유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배치시키신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그는 접근하고 있다.”⁶⁶⁾

그는 모세를 가리켜 “우리의 스승 모세”⁶⁷⁾라고 불렀는데, 그에 의하면 “그는 우리들의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감탄을 전하고 있다.”⁶⁸⁾고 한다. 그에 의하면 “모세는 별들에게 보다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두고”⁶⁹⁾ 창세기를 기록했으며, 칼빈은 모세가 평범한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한 것에 대하여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은 모든 사람을 위해 학교를 개방하여 모두들 익히 아는 내용을 택하신 것”⁷⁰⁾이라고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니젤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칼빈은 창조의 목적을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땅 위에서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지 않고 같은 목적으로 교회를 인도하지 못한다면 이 땅의 모든 자연질서는 혼란에 빠질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이 없다면 모든 피조물은 소멸될 것이고 무의미할 것이다.’”⁷¹⁾

61) Ibid., p.59.

62) Ibid. 참조 롬 1:20, 시 19:1.

63) Ibid., p.60.

64) Ibid.

65) Ibid., p.62.

66) Ibid.

67) Calvin, *Genesis*, 1:20.

68) Ibid.

69) Calvin, *Genesis*, 1:15.

70) Calvin, *Genesis*, 1:16.

71)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S.60. CR 32, 192 인용. 시 116:17.

칼빈은 창조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바실(Basilus)이나 암브로스(Ambrose) 같은 이들의 견해를 수용한다.⁷²⁾ 이들의 견해의 특징은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이다.

우리는 칼빈의 글을 읽으면서 그 당시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데, 칼빈이 비록 지구를 평면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 역시 그 당시의 견해를 따라 지구 중심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무지한 사람들은 이 우주라는 극장을 이상한 모양으로 상상한다."⁷³⁾고 하면서도, "우리는 정말로 천체들의 순환이 유한적이며, 조그마한 지구본과 같은 이 지구는 한 중심에 위치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들이 아니다."⁷⁴⁾고 하였다. 칼빈은 당시의 제한된 천문학적 지식 때문에 오늘날의 지식에 비추어 볼 때 잘못 말하기도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표현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나는 천문학자들의 주장처럼 달이 불명료한 물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캄캄한 물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달에게는 불의 요소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불타고 있는 물체일 것이다. 따라서 달은 발광체이다."⁷⁵⁾

칼빈이 비록 그 시대에 속하여 제한적인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학문으로서의 천문학에 대하여서는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모세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체로 기록했지만, 천문학자들은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심혈을 기울여 연구하였다."⁷⁶⁾고 하며, 이러한 연구에 대하여 칼빈은 "이러한 연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⁷⁷⁾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천문학은 좋은 학문일 뿐만 아니라 아주 유용한 학문이다.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천문학의 연구를 통해서 유익한 공헌을 한 학자들은 존경받아야 한다. 또한 여가와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일에 힘써야 한다."⁷⁸⁾고 말함으로써 개혁신앙에 있어서 일반은총의 영역에

72) Calvin, *Inst.* I.xiv.20, n.29.

73) Calvin, *Genesis*, 1:6.

74) Calvin, "Argument," p.61.

75) Calvin, *Genesis*, 1:15.

76) Ibid.

77) Ibid.

78) Ibid.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분명히 드러내었다.

5. 절제

성경을 주석하는 일에 있어서나 신학적 논의에 있어서 칼빈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적당한 데서 멈추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표현대로는 “절도와 적정의 원리”(modestiae et sobritatis regulam)⁷⁹⁾에 해당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사변적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공허한 사색(mltl'wmltl)”을 떠나야 하는데,⁸⁰⁾ “그 분의 뜻이 모든 지혜의 척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만족해야 되는 것이다.”⁸¹⁾ 창조세계를 논하면서 그 논의가 창조주에 대하여 미치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존재의 영원성과 그 분의 영광의 무한성은 둘 다 모두 이중적인 미궁을 입증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손하게 여호와와의 인도와 지시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 이상은 추구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만족시키자.”⁸²⁾고 하여 그 적절한 선에서 멈추기를 권고하였다. 실례로 그의 주석에서 궁창 위의 물에 대하여 설명을 시도하면서 그는 “공연하고 명백한 문제에 대해 더 이상 파고든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⁸³⁾라고 하였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겸손을 시험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추어 두신 것을 알고 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 못된다.”⁸⁴⁾고 하였다. 칼빈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아득히 먼 옛날에 세계를 창조하시지 않은 것은 게으른 탓”이라고 비난하는 데 대하여, “저들은 자기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세계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한다.”고 비판하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한하기를 원하시는 울타리... 그 울타리 안에 즐거이 머물자!”⁸⁵⁾고 권하였다. 칼빈은 특히 창조세계의 기원

79) Calvin, *Inst.* I.xiv.4. “여기에서 모든 종교적인 교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적정과 절도의 규범을 지켜야 함을 기억하고 있다. 즉 감추어진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말하거나 생각하고 알고자 욕망하지 않는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적정과 절도의 규범은 두 가지 근본원리 즉 “오직 성경과 호기심의 거절”로 규정되어지고 있다.

80) Calvin, *Inst.* I.xiv.4.

81) Calvin, “Argument,” p.61.

82) Ibid. p.62.

83) Calvin, *Genesis*, 1:6.

84) Calvin, *Inst.* Ixiv.1.

85) Calvin, *Inst.* I.xiv.1.

에 대하여 사색하면서 “신앙의 단순성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도록”⁸⁶⁾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칼빈은 이러한 절도와 적정의 원리가 철저히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세워져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의 모든 교리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 이외의 그 어떠한 모호한 문제에 대하여는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심지어는 알고도 하지 않도록 겸손과 진실에 관한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다.”⁸⁷⁾

6. 우선 순위 또는 선결문제

칼빈은 창조세계의 비밀에 대하여 논하는 것과 관계하여 선결되어야 할 문제로 신앙을 꼽았다. 그에 의하면 “복음의 말씀으로 먼저 겸손해져서 자신들의 지적인 지혜를 완전히 십자가의 미련함에 맡기는 것을 터득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창조의 오묘성을 추론하여 알게 되는 것”⁸⁸⁾이며, “철학자로서 이 우주창조자의 기교에 대하여 추론하는 것은 헛된 수고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확신하기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복음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기 전에는 어느 곳에서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방법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⁸⁹⁾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불가시적인 왕국이 모든 것을 채우며, 그분의 영적인 은혜는 모든 것을 통하여 발산되고 있다.”⁹⁰⁾

이와 관련하여 칼빈은 신학자로서 “알아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열심히 탐구한다는 것은 실로 무가치한 일”⁹¹⁾이라고 하며, 신비에 속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 지나친 호기심을 갖고 탐구한다든가, 너무 확신 있게 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⁹²⁾ 한다고 하였다. 그는 자신의 창세기 주석에 대하여 창세기를 간결하게 다룬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분은 성실하게 주석하였다고 하였다.⁹³⁾

86) Calvin, *Inst.* I.xiv.3.

87) Calvin, *Inst.* I.xiv.4.

88) Calvin, “Argument,” p.63. 고전 1:21 참조.

89) Ibid.

90) Ibid., p.64.

91) Calvin, *Inst.* I.xiv.7.

92) Calvin, *Inst.* I.xiv.8.

93) Calvin, “Dedicatory,” p.liii.

제 2 부 창조(creatio)의 성격과 내용

1. 무(無)에서의 창조(creatio ex nihilo)

1) 무에서의 창조

“창조”는 당연히 “무에서의 창조”를 가리킨다. 이것은 칼빈의 창조교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이다. 칼빈은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를 주석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서 이 때 쓰인 창조라는 동사가 **בָּרָא**가 아니라 **אֱבָרָ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상이 무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모세가 말하고자 한다고 하였다.⁹⁴⁾ 그에 의하면 세계란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것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무로부터의 창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⁹⁵⁾ 칼빈은 창세기 기록에서 무로부터의 창조를 가리키는 **אֱבָרָא** 동사가 제한적으로 쓰인 것을 관찰하고는⁹⁶⁾ 자신도 무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하여는 창조라는 말 자체를 쓰기를 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칼빈은 천지창조의 최초행위와 그 창조된 물질을 가지고 예정된 형태로 형성해 나가는 후속적 행위를 예민하게 구별하면서 그는 창조라는 용어를 가능한 전자에만 국한시켜 사용하고자 하였다.⁹⁷⁾

2) 직접창조와 간접창조

이 논의는 이러한 용어를 위필드가 칼빈에게 적용한 데 대하여 머레이가 비판하면서 제기된 것이다. 머레이의 논지는 칼빈에게 아직 있지도 않은 것을 후대 학자의 관심으로 그에게 적용하는 것이 무리라는 말이다.⁹⁸⁾ 위필드에 의하면 칼빈에게

94) Calvin, *Genesis*, 1:1.

95) 칼빈이 말하는 “무로부터의 창조”는 후에 위필드에 의해서 직접창조와 간접창조란 말로 나누어 설명되었는데, 여기서 직접창조란 말 그대로 ‘무’에서 물질세계를 창조한 것을 가리키며, 간접창조란 창조된 물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 직접창조의 출발점은 ‘무’이고, 간접창조의 출발점은 ‘물질’이다. 이런 논의에 대하여 머레이는 칼빈 당시에는 없었던 후대의 논의를 칼빈에게 적용하여 논하는 이런 방식 자체에 대하여 비판하고, 칼빈이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았으나, 그런 면에 대하여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인하였다.

96) 그는 **אֱבָרָא** 동사가 창 1:1, 21, 27에만 제한적으로 쓰인 것에 착안하였다.

97) B. B. Warfield, *Calvin and Calvinism*, pp.299-300.

98) J. Murray, “Calvin’s Doctrine of Creation,” p.21

있어서 창조란 단지 '무'로부터의 직접창조 뿐이므로, 이미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하여 말하는 간접창조란 말 자체가 칼빈에게 있어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칼빈이 간접창조를 부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⁹⁹⁾ 이에 비하여 머레이는 직접창조나 간접창조라는 용어는 후대의 것이며, 그와 같은 후대의 용어로 전대의 사상을 가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머레이에 의하면 물론 칼빈이 창조라는 용어를 조심스럽게 구별하여 썼지만 그가 간접창조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간접창조를 부인했다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하면서, 칼빈은 간접창조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뿐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¹⁰⁰⁾ 머레이에 의하면 칼빈이 간접창조라는 말을 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능력 없이도 무엇인가 이를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오해를 막기 위하여 잘한 일이며, 그렇다고 하여 그가 하나님에 의한 간접창조의 개념을 부인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한다.¹⁰¹⁾

2. 6일 창조와 목회적 관심

칼빈에 의하면 "6일간의 사역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 준다."¹⁰²⁾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순식간에도 이루실 수 있는 일을 몇세 동안이나 걸려서 이루셨다는 데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칼빈은 불신앙적인 논의들을 일축하고 창세기의 기록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그렇게 하신 의의를 분명히 드러내었다. 6일 창조란 이 주제와 관련하여 그 당시의 잘못된 견해들에 대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세상이 일순간에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¹⁰³⁾ "하나님께서는 일순간에 창조사역을 이루셨는데, 모세가 후대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나누어 창조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¹⁰⁴⁾

이어 그는 6일 창조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99) B. B. Warfield: "Calvin's Doctrine of the Creation" in: *Calvin and Calvinism*, pp.301f.

100) J. Murray, "Calvin's Doctrine of Creation," p.41.

101) Ibid., p.43.

102) Calvin, *Inst.* I.xiv.2.T.

103) Calvin, *Genesis*, 1:5.

104) Ibid.

사역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6일이라는 기간을 정하셨다고 단정할 수 있다.¹⁰⁵⁾ 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고쳐주시기 위해 좋은 치유책을 사용하셨는데,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잠시 조용히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를 몇 부분으로 나누신 것.”¹⁰⁶⁾이라고 한다. 또 다른 곳에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에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¹⁰⁷⁾ 결국 그에 의하면 6일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의 문제였다.

심지어 그는 창조의 순서가 주는 교훈에 대하여서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순서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하셨다고 선언해야 한다.”¹⁰⁸⁾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순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셨으므로 것처럼 행하셨다는 것이다.”¹⁰⁹⁾고 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창조의 질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빛을 장악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이 없이도 빛을 비추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신다.”¹¹⁰⁾ 칼빈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맺는 과목의 창조에 대하여 해설하면서 “우리는 실제로 땅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 땅의 소산물들을 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러한 법칙을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모르실 리 없으심에도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해와 달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¹¹¹⁾이라고 하였다. 이어 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에게 빛을 발하는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해와 달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¹¹²⁾고 하였다.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미 빛을 창조하셨지만, 이제는 자연에다 새로운 질서를 설정하신다. ...

105) Ibid.

106) Ibid.

107) Calvin, *Genesis*, 1:26.

108) Calvin, *Genesis*, 1:11.

109) Ibid.

110) Calvin, *Genesis*, 1:3.

111) Calvin, *Genesis*, 1:11.

112) Ibid.

태양은 낮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달과 별은 밤에 빛을 비추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하신 이유는 우리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¹¹³⁾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태양과 달과 별들은 창조된 목적에 따라 빛을 잘 발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¹¹⁴⁾ 칼빈은 “창조의 질서만 보더라도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부성적인 배려가 현저히 나타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으며, 심지어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엄청난 재물을 충분히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¹¹⁵⁾이라고 하였다.

바로 이 점에서 그의 목회적 관심이 잘 드러나는데, 그에 의하면 “우리들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하며, 중간 원인과 둘째 원인은 단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¹¹⁶⁾ 또한 그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놀라운 예술가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이다”¹¹⁷⁾고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순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셨으므로 것처럼 행하셨다는 것이다.”¹¹⁸⁾

칼빈은 특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부성적인 배려에 대하여 말하였는데,¹¹⁹⁾ “하나님께서 자신의 산 형상을 보여주는 거울로서 모세의 역사를 우리 앞에 두셨다.”¹²⁰⁾고 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숙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¹²¹⁾이다. 그에 의하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사물의 순서에서 인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¹²²⁾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113) Calvin, *Genesis*, 1:14.

114) Ibid.

115) Calvin, *Genesis*, 1:26.

116) Calvin, *Genesis*, 1:11.

117) Calvin, *Genesis*, 1:14.

118) Calvin, *Genesis*, 1:11.

119) 예를 들어 “섭리와 부성적인 배려”(Calvin, *Inst.* I.xiv.22). “하나님께서서는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 한 가족의 아버지의 책임을 다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선하심을 보여주셨다.”(I.xiv2)는 표현들.

120) Calvin, *Inst.* I.xiv.1.

121) Calvin, *Genesis*, 2:3.

122) Calvin, *Inst.* I.xiv.2.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인간에게 유용하며 유익하다고 미리 아신 것들을 모두 준비 하셨습니다.” 칼빈은 “창조의 질서만 보더라도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부성적인 배려가 현저히 나타난다”고 하면서,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 하셨으며, 심지어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엄청난 재물을 충분히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¹²³⁾이라고 하였다.

칼빈은 하나님의 창조가 사람을 위한 창조라고 주장한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드셨다.”¹²⁴⁾고 하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창조의 순서를 통해 스스로 보여 주셨다.”¹²⁵⁾고 한다. 또 다른 곳에서 그는 “우주가 특별히 인류를 위하여 만들어졌다”¹²⁶⁾고 하였다. 칼빈은 만물이 창조된 목적이 “인생에 필요한 것과 편리한 것을 공급하여 인간에게 부족한 것이 전혀 없도록 하려는 것”¹²⁷⁾이었다고 하였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¹²⁸⁾ 하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목상할 수 있도록”¹²⁹⁾ 배려하셨다.

3. 보이는 세계의 창조와 목회적 관심

이제 칼빈은 보이는 세계의 창조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 목회적 관심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다. 칼빈에게 있어서 세계는 때로 기구로, 때로 극장으로, 때로 학교로, 때로 거울로 표현된다.

1) 기구로서

칼빈은 “우주의 구조”¹³⁰⁾라는 표현을 자주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 천체에 관한 칼빈의 지식을 엿볼 수 있다.¹³¹⁾ “어떤 별들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위치

123) Calvin, *Genesis*, 1:26.

124) Calvin, *Inst.* I.xiv.22.

125) Calvin, *Inst.* I.xiv.22. 비교. 2.

126) Calvin, *Inst.* I.xvi.6. 비교. I.xiv.22, n.32, 창 1:26 주석.

127) Calvin, *Genesis*, 1:26.

128) Calvin, *Genesis*, 1:5.

129) Calvin, *Genesis*, 1:26.

130) Calvin, *Inst.* I.x.1, n.2와 관주들. 참조. I.xiv.21, n.31.

131) Calvin, *Inst.* I.xiv.21.

를 고정시켜 놓으셨으며, 어떤 별들에게는 한층 더 자유로운 운동을 허용하셨다. 그렇지만 그들이 지정된 궤도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셨으며, 모든 별의 운동을 조정하여 별들로 하여금 낮과 밤, 달과 해, 그리고 계절을 구분하셨고, 우리가 항상 보는 대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날의 균차를 조정하셨다.”¹³²⁾

2) 극장으로서

또한 칼빈은 창조세계를 '극장'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¹³³⁾ 그는 “세상이 창조된 후에 인간을 마치 극장 안에서와 같이 그 안에 살게 하셔서, 인간이 ...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창조자를 경건하게 찬양하게 하시었다.”고 하며,¹³⁴⁾ “인간은 하늘과 땅이라는 웅장한 극장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공효와 ... 숙고해야 한다.”¹³⁵⁾고 하였다. 이처럼 칼빈은 하늘과 땅을 극장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다수가 잘못에 빠져들어 그와 같은 눈부신 극장 안에 있으면서도 눈먼 자가 되어 있다”¹³⁶⁾고 하였다.

3) 학교로서

칼빈은 이 세상을 학교로도 표현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을 우리의 학교로 삼아야 된다.”¹³⁷⁾ 그에 의하면 이 창조세계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 있다.”¹³⁸⁾ 칼빈에 의하면 “자연적인 순서로는 우주라는 기구가 일종의 학교가 되어 그 안에서 우리가 경건을 배우고, 거기서부터 다시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복락으로 전진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람이 반역한 후로 우리는 어느 쪽으로 향하든 간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뿐이다. ... 우리는 우주를 보고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¹³⁹⁾ “확실히 처음 사람의 타락 이후로 중보자를 떠나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구원을 얻게 하는 힘

132) Ibid.

133) 참조. Calvin, *Inst.* I.v.8, n.27; I.vi.2; I.xiv.20, n.27; II.vi.1; III.ix.2: 창 1:6 주석; 시 138:1 주석 등에서. 칼빈은 “이 웅대한 극장”(II.vi)(비교. I.vi.2). 또는 “무수한 기적이 가득히 들어찬 하늘과 땅.” 또는 “가장 아름다운 이 극장”(I.xiv.20, n.27)이라는 표현을 썼다.

134) Calvin, “Argument.” p.64.

135) Calvin, *Genesis*. 2:3.

136) Calvin, *Inst.* I.v.8, n.27과 그 관주들.

137) Calvin, “Argument.” p.60.

138) Calvin, *Inst.* I.v.11.

139) Calvin, *Inst.* II.vi.1.

이 없었다.” “그러나 신앙은 이보다 훨씬 더 안으로 들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발견한 즉시 그가 만물의 통치자요 보호자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¹⁴⁰⁾

4) 거울로서

또한 그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거울”¹⁴¹⁾이라고 보았다. 그는 “사람들이 눈을 꼭 감은 채로 이 세상의 구조 가운데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거울을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¹⁴²⁾라고 표현하였다. 물론 그가 여기서 “거울”¹⁴³⁾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의 눈이 하늘과 땅의 구조가 의미하고 있는 것을 분별할 만큼 충분히 깨끗하게 닦아져 있다거나, 또는 여기서 얻게 될 지식이 구원을 얻는 데 충분하다고 주장”¹⁴⁴⁾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는 하늘과 땅의 감탄할만한 구조에서 과시되고 있기 때문에 표현적인 면에서 세계의 창조의 역사를 그 숭고성 그대로 설명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¹⁴⁵⁾

이제 창조세계를 때로 기구로, 때로 극장으로, 때로 학교로, 때로 거울로 표현한 것과 관계하여 표현된 그의 목회적 관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호와께서 자신에 대하여 알도록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여 어떤 모양으로 자신을 계시하면서 우리들이 보는 눈앞에 천지의 조직을 펼쳐 놓으셨다.”고 한다. “그 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저기 하늘과 땅의 조직에서 전시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⁴⁶⁾ 다음으로, 그는 인생으로서는 극장 같은 세상 안에 살면서 그것을 만드신 창조자를 경건하게 찬양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¹⁴⁷⁾ “가장 아름다운 이 극장에서 도처에 표현된 하나님의 사역을 경건하게 즐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지 말자.”¹⁴⁸⁾고 하였다. 어떻게 경건하게 즐기는가? 칼빈에 의하면 “어디를 보나 눈에 띄는 것은 다 하나님

140) Calvin, *Inst.* I.xvi.1.

141) Calvin, “Argument,” p.62.

142) Calvin, “Dedicatory,” p.xlviii.

143) Calvin, “Argument,” p.62.

144) Ibid.

145) Ibid., p.57.

146) 롬 1:20. 비교. 시 19:1.

147) Calvin, “Argument,” p.64.

148) Calvin, *Inst.* I.xiv. 20.

의 사역임을 기억하는 일,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는가를 경건히 명상하여 생각하는 일 - 이러한 것들은 자연의 질서에 있어서 첫째가는 증거가 된다."고 하였다. "신앙은 이보다 훨씬 더 안으로 들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발견한 즉시 그가 만물의 통치자요 보호자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¹⁴⁹⁾ 칼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는 피조물들을 이용하여 그 분 자신에게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며,"¹⁵⁰⁾ 인생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게 되며,"¹⁵¹⁾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만사를 제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주신 큰 은사에서 느끼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¹⁵²⁾ "만일 누가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피조물에게서 보여주신 그 명백한 권능을 아무 생각 없이 잊어버리거나 그냥 넘겨버리지 않는다면 ... " "만일 누가 마음에 감동을 받을 정도로 그것 -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만사를 제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 을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배운다면 ... "¹⁵³⁾

칼빈은 다음 몇 가지로 창조의 목적(사람에 대한 배려)을 생각하였다. 첫째로, "세상이 창조된 후에 인간을 마치 극장 안에서와 같이 그 안에 살게 하셔서 인간이 그의 위와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창조자를 경건하게 찬양하게 하셨으며," 둘째로, "모든 것들은 한결같이 인간이 사용하도록 작정되었으며, 그래서 보다 많은 의무를 지고 있는 인간은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에 헌신하고 전념하게 하셨으며," 셋째로, "인간은 깨달음과 이성으로 부여받아서 야수적인 동물과는 구별되어 보다 좋은 생활을 생각하여 그 인간 자신의 인격에 새겨져 있는 형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 나가게까지 하셨다."¹⁵⁴⁾

149) Calvin, *Inst.* I.xvi.1.

150) Calvin, "Argument," p.62.

151) Ibid. p.63.

152) Calvin, *Inst.* I.xiv. 22, n.32.

153) Ibid.

154) Calvin, "Argument," p.65.

4.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창조와 목회적 관심

칼빈은 천지의 창조에 대하여 기술한 창세기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언급이 없는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실 모세는 일반 대중의 무지에 순응하여 창조의 역사 중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이외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¹⁵⁵⁾ 그에 의하면 이것은 "단순한 교육방법"¹⁵⁶⁾이다. 칼빈에 의하면 "모세는 통용적인 방법으로 말했기 때문에 자신의 저작 첫머리에서 천사를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넣어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¹⁵⁷⁾ 이처럼 칼빈은 성경 기술의 보편성이라는 바탕에 기초하여 언급되지 않은 이유를 보려고 하였다.

비록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창조라는 주제를 성경전체로부터 파악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창조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칼빈연구가인 니젤도 이 주제를 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음을 주목해야 한다."¹⁵⁸⁾고 하며,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그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¹⁵⁹⁾고 하였다. 또한 니젤은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의 지각이 감지하는 것보다 더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¹⁶⁰⁾라는 칼빈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점에 대한 칼빈의 인식을 환기시켰다.

1) 천사

칼빈은 천사 창조에 대하여 기독교 강요에서 매우 길게 논하는데, 그에 의하면 우리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¹⁶¹⁾는 말씀 속에서 천사의 존재를 확인해야 하며, 그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것에서 만족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비하여 그것이 언제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의 수가 얼마인지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쓸모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였다.¹⁶²⁾ 그러면서 그는 천사의 직무에 대하여 말하는

155) Calvin, *Inst.* I.xiv.3.

156) Calvin, *Genesis*, 1:16.

157) Calvin, *Inst.* I.xiv.3

158)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S.59.

159) Ibid.

160) Calvin, *Inst.* I.xiv.3-19. 비교. Niesel, S.59.

161) 창 2:1

162) Calvin, *Inst.* I.xiv.4. 칼빈은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현명해지기를 원한다면, 쓸

데, 천사의 직무란 하나님의 은혜를 분배하는 일이고, 마귀와 원수들과 싸우는 것이며, 성도를 해롭게 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보복을 행사하며 성도의 구원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였다.¹⁶³⁾

2) 마귀 - 마귀는 타락한 피조물

또한 그는 악한 천사(사탄, 마귀)의 기원에 대하여서도 말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여 존재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악은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 받은 것이 아니라 타락으로 말미암아 소유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한다.¹⁶⁴⁾ 따라서 그들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 하에 놓여 있으며,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그들이 아무리 사악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들 자체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¹⁶⁵⁾

그것이 보이는 세계이든 보이지 않는 세계이든 세계의 창조와 관계하여 칼빈은 목회적 관심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다. 칼빈은 인간 창조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을 주석하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부성적인 돌보심을 항상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함을 배울 수 있다”¹⁶⁶⁾ 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이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였다. “보라, 나는 너희가 지음을 받기 전에 이미 필요한 양식을 준비해 두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너희 아버지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창조되기 이전에 너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부지런히 마련했다. 더욱이 나는 아직도 너희를 위하여 계속 배려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 내가 마련한 것을 양육하는 것은 모두 너희 일이다. 그러나 나 자신도 그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의미에서 ‘세상적인 가정의 아버지가 되었지만, 동물을 기르는 문

모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천사의 성질, 계급, 수에 대하여 가르치는 그 공허한 사색을 떠나야만 한다.”고 역설하였다.

163) Calvin, *Inst.* I.xiv.6-8.

164) Calvin, *Inst.* I.xiv.16. 이에 대하여 워필드 박사도 매우 강조하는데, 그는 이원론을 의식하여 사탄의 피조성을 강조하면서도 사탄에게 있는 악의 기원에 대하여는 피조성에서가 아니라 타락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탄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B. B. Warfield, *Calvin and Calvinism*, pp.326-337).

165) Calvin, *Inst.* I.xiv.17.

166) Calvin, *Genesis*, 1:28.

제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¹⁶⁷⁾고 하였다.

칼빈은 사람에게 풍성한 양식을 허락하신 데 대하여 주석하면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언급한다.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부여해 주심으로써 배은망덕한 자세를 변명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¹⁶⁸⁾고 하였다.

5. 창조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

칼빈에 의하면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이다. 창조는 성부께서 말씀을 수단으로 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신 것이다.

1) 말씀을 수단으로

칼빈은 "세상은 말씀의 권능으로 시작되었고, 동일한 말씀의 권능으로 완성되었음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¹⁶⁹⁾고 한다. 이 때 말하는 말씀이 무엇/누구인가? 칼빈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인해 창조되었다고 사도들은 가르친다."¹⁷⁰⁾고 한다. 말씀은 곧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심지어 칼빈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지혜'이시며, 하나님께서도 이 지혜가 없이는 결코 존재하실 수 없다."¹⁷¹⁾고 하였다. 칼빈에 의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시기까지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구별의 행위로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해졌기 때문이다."¹⁷²⁾고 한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말씀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도 아니다."¹⁷²⁾ "이것은 그 원인이 결과가 있기 이전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식이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기까지는 땅은 메마르고 공허한 상태였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기도 전에 땅 자체가

167) Ibid.

168) Ibid.

169) Calvin, Genesis, 1:3. 비교. 요 1:3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70) Ibid.

171) Ibid.

172) Calvin, *Inst.* III.xiv. Servetus 비판과 관계하여.

어떤 것을 만들어 낸다거나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곳으로부터 힘을 얻어 무엇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¹⁷³⁾ “이 모든 것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¹⁷⁴⁾ 칼빈은 말하기를 땅에서 씨가 어떻게 싹이 트며, 어떻게 열매가 열리며, 어떻게 익으며, 여러 종류의 식물이 매년 어떻게 소생하는가를 우리가 묻는다면 다른 데서 그 대답을 얻지 못할 것이고, 다만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다는 것, 즉 영원한 명령을 선포하셨다는 사실”¹⁷⁵⁾에서 얻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이같은 사실을 칼빈 연구가 니젤도 잘 드러내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성부께서는 “명령의 말씀으로만”¹⁷⁶⁾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행했던 방법”¹⁷⁷⁾이며, “성자는 창조과정의 수단”¹⁷⁸⁾으로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는가를 보여주고자 한다.”¹⁷⁹⁾ 고 하였다.

2) 성령의 능력으로

성부께서는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칼빈은 “모세는 이 세상이 유지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함을 언급한다.”고 하였다. “모세는 이 덩어리가 아무리 혼돈가운데 있었다해도 성령의 은밀하신 권능에 의해 얼마동안 지탱되었다고 주장한다.”¹⁸⁰⁾ “하나님의 은밀하신 영감 덕분에 이러한 혼돈은 와해되지 않았을 것이다.”¹⁸¹⁾고 하였다. 이처럼 성부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무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¹⁸²⁾

창조신앙과 관련하여 칼빈이 보이는 목회적 관심은 다음의 표현에서 잘 드러난

173) Calvin, *Genesis*, 1:11. 비교. 시 33:6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174) Ibid.

175) Ibid.

176)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S.59. CR 31, 328. 시 33:8.

177) Ebd. CR 31, 328.

178) CR 9, 369: 47, 477.

179)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S.58. CR 47, 477.

180) Calvin, *Genesis*, 1:2.

181) 비교. 시 104:30, 29.

182)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S.59. Inst. I.xiv.20.

다. "우리는 하나님을 친지의 창조주로 부를 때마다 ...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분배는 그의 솜씨와 권능으로 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그의 성실한 보호 속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고 있는 그의 자녀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¹⁸³⁾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한 단지 자녀라는 사실에 머물지 아니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성실하게 양육과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고백한다. 성도들이 이러한 확신과 신뢰를 가질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어디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칼빈은 창조주와 관계하여 성도가 견고한 하나님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축복의 충만함을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기대하고, 하나님께서도 구원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갖지 못한 채 있도록 내버려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완전히 신뢰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 하나님께 구하며, ...으로 인식하고 ... 고백해야 한다. 우리는 ... 초대되었으므로,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며 섬기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¹⁸⁴⁾

칼빈은 결코 성경문서를 해석하는 데만 머물지 않는다. 그에 의하면 성경은 바로 오늘 현재의 삶을 위한 말씀이다. 그는 다음의 말로 창세기 말씀의 현재 적용성을 갈파하였다. "비록 용어 선택이 그다지 적절하지 않고 고상하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경건한 독자들이 모세가 묘사하고 있는 대로 고대 교회의 본을 자기들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배우기만 한다면 참으로 많은 대가가 그들의 노력에 보답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족장들과 동일한 유업을 받는 소망가운데서 우리와 그들을 연관시키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그들을 분리시키고 있는 시간의 간격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신앙과 인내의 상호 일치된 가운데서 그들이 당할 똑같은 갈등들을 견디어 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¹⁸⁵⁾ 이 같은 자세는 그 때로부터 435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183) Calvin, *Inst.* I.xiv.22.

184) *Ibid.*

185) Calvin, "Dedictory." p.lii.

또한 그의 시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향해 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불신앙적인 신학은 창세기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묻는다. 우리는 이에 대한 대답을 칼빈으로부터 분명히 들 수 있다. 칼빈은 창세기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세가 세상의 창조로 시작하고 있긴 하지만 그 주제에 제한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이 상호 관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성의 빛을 인간에게 부여하시고 아주 많은 특전으로 장식해 주셨으나 인간 자신의 잘못으로 타락하여 그 결과로 그가 얻었던 모든 혜택들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사실과 또한 그 후에 하나님의 긍휼로 인간은 다시 이전에 몰수당했던 생명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과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인애로 말미암아 되어 진다는 것들이 상호 연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입양된 자들의 모임이 이 지상에 언제나 있게 하려는 것이며,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려는 것 등의 이 모든 사실들도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렇게 한계를 긋지 않고 있는 것이다.”¹⁸⁶⁾

창조된 세계 속에서 창조된 자로 사는 자가 창조주를 알아드리고 그를 영화롭게 해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인생들 가운데서 많은 자들이 그렇지 못하다. 칼빈은 불신앙의 원인을 고집과 무관심으로 지적한다. 먼저, “사람들이 눈을 꼭 감은 채로 이 세상의 구조 가운데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거울을 그냥 지나치기 때문”¹⁸⁷⁾이라고 한 데서 그들의 고집스러움이 지적된다. 칼빈은 “바벨을 건립한 직후에 그 일들에 대한 기억력이 완전히 제거되어 버렸다”고 한다. 다음으로 “불경스러운 자들에게는 그들의 분산이 결국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일종의 해방이었을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이 세계의 창조에 대하여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바를 잊지 않고 지니고 다니는 것이나 그 이야기를 계속하여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것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라고 한 데서 그들의 무관심이 지적된다. 이러한 무관심의 결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외에는 어느 민족도 이천 년 이상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에도 그 민족 자체

186) Calvin, “Argument,” p.64.

187) Calvin, “Dedicatory,” p.xlviii.

가 과연 어떤 근원에서 시작되었으며, 인류의 우주적인 종족이 언제부터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나아가 칼빈은 "이 세상의 창조주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에 모든 것을 쏟아야 될 자들이 악의에 가득찬 불경건으로 오히려 자신들을 스스로 봉사가 되게 하는 데에 연루되어 가담하였다"¹⁸⁸⁾고 지적한다.

나오는 말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 기술된 창조에 대한 칼빈의 이해와 그의 목회적 관심에 대하여 말하였다. 먼저 칼빈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창조신앙에 대하여 말하였고, 다음으로 창조신앙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하여 말하였다. 지금까지 논의된 글들에서는 '칼빈의 창조론'이라는 제목 하에 혹은 보다 전문적인 신학적인 논의를 하거나 혹은 보다 포괄적인 정리를 하였는데 비하여, 본 글에서는 '칼빈의 창조론'이라는 제목보다는 '성경이 진술하는 창조에 대한 칼빈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그 관점을 바꾸어 보다 포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서는 신학적인 논의도 빠뜨리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이 주제와 연관된 목회적 관심이란 면이 본 글의 주요한 특성이 된다고 하겠다. 창조론 역시 하나의 논(論)에 그치기 쉬운데, 여기에다 목회적 관심을 연결하므로 보다 실천적인 관심이 있는 글이 되었다. 우리가 살펴 본대로 칼빈은 목회적 관심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목회적 관심이 없이는 신학을 논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그는 신실한 목회자요, 동시에 탁월한 신학자였다. '칼빈의 창조론'에 대한 글도 그다지 많지 않은데, 거기에다 목회적 관심까지 연결시키게 되므로, 이 글은 이 분야에서 단연 처음 쓰여지게 되는 글이 된 셈이다.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관심으로 칼빈의 글을 살핌으로 이 논의를 보다 풍요하게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88) Ibid.

참고문헌

1. 일차 자료

-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by F. L. Battles, Philadelphia 1977(8th.)
- _____. *Commentaries on the first book of Moses called Genesis*(vol.1), trans. by J. King(1847), Grand Rapids 1948,
- _____. "Argument," in: J. Calvin, *Commentaries on the first book of Moses called Genesis*(vol.1), trans. by J. King(1847), Grand Rapids 1948,
- _____. "Dedicatory," in: J. Calvin, *Commentaries on the first book of Moses called Genesis*(vol.1), trans. by J. King(1847), Grand Rapids 1948,

2. 이차 자료

- J. Bohatec, "Calvins Vorsehungslehre"(*Calvinstudien*, Reform. Gemeinde, Elberfeld, 1909, S.339-441)
- W.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Munich 1938
- W. Luetgert, "Calvins Lehre vom Schoepfer"(*Zeitschrift fuer syst. Theologie*, 9, Guetersloh, 1931, S.421-40)
- K. Barth, *KD I/1*
- J. Moltmann, *Gott in der Schoepfung*, Muenchen 1987(3.Aufl.)
- J. Murray, "Calvin's doctrine of creation," in: *WMTJ*, Philadelphia 1954/55, pp.21-43.
- B. B. Warfield, "Calvin's doctrine of creation," in: *The Princeton Theological Review*, 1915, pp.190-255. reed. in: *Calvin and Calvinism*, New York, 1931, pp.287-343.
- K. Werner, *Das Wirken des Heiligen Geistes nach Calvin*, Goettingen 1957.
- P. Wernle, *Der evangelische Glaube nach den Hauptschriften der Reformatoren*, tome 3: Calvin, Tuebingen 1919